

무안군 김대중광장에 주민센터 건립 '파문'

군, 용도 변경 추진...주민들 "DJ 정신 훼손" 반발

무안군이 전남도청 남쪽에 위치한 '김대중 광장'을 훼손하면서 남악 복합 주민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무안군에 따르면 남악 복합 주민센터(이하 복합 주민센터)를 2016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현재 군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및 부지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군 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공원지구→정사지구) 심의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다. 복합 주민센터는 남악 신도시개발사업소와 삼향읍 출장소, 문화센터, 남악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함께 사용하게 된다. 무안군은 당초 삼향읍 남악리 1499번지에 복합 주민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군은 기본설계 도중 '주·정차 교통여건이 나쁘고 지하에 암반층이 있어 공사비용이 과다소요돼 비경제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갑작스럽게 군유지인 남악리 2615번지로 건립위치를 변경했다. 복합 주민센터 규모도 커졌다. 당초 부지 6663㎡·건축연면적 6009㎡(지상 5층·지하 1층)이던 것이 부지 9900㎡·건축연면적 5316㎡(지상 5층·지하 1층)로 바뀌었다. 사업비는 194억5400만원에서 161억 81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건립예정 부지에는 전남개발공사가 남악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평화와 인권, 지역감정 해소에 헌신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김대중 광장'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전남개발공사는 기존 공원면적(1만7750㎡)이 협소하다는 의견에 따라 '노른자위' 중심상업용 부지 1만4337㎡(분양가 186억원 상당)를 붙여 '김대중 광장'을 조성했다. 이곳 인근 토지가 현재 평당 800만~9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1월 무안군에 남악신도시 개발토지를 인계했는데, 군은 토지를 인수·인계받은 지 1년여 만에 복합 주민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김대중 광장'에 대해 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호남정치의 상징적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사적인 가치를 외면한 채 '김대중 광장'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주민 거주 밀도가 낮은 곳에 무리하게 복합 주민센터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9월 현재 전남도청 앞 중앙공원 기준으로 동쪽에 1만8486명, 반대편에 9991명이 거주한다. 내년 초에 15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주민편중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향후 남악 신도시 2차 개발지구인 오희지구에 3만명이 입주하는 등 인구차이가 더욱 심할 것으로 전망돼 복합 주민센터 건립위치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현재 광장에는 정자와 소나무 몇 그루가 전부"라며 "잡초만 무성하게 방치하는 것보다 주변의 교통망과 편의시설이 좋아 복합센터가 들어서면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을 물론 보건, 문화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무안군 관계자는 "현재 광장에는 정자와 소나무 몇 그루가 전부"라며 "잡초만 무성하게 방치하는 것보다 주변의 교통망과 편의시설이 좋아 복합센터가 들어서면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을 물론 보건, 문화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목포대, 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 선정

5년간 70억원 지원 받아 중소 조선포 최적 선박 개발

목포대학교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2014년도 제5차 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돼 5년간 정부지원금 70억 원을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 선정된 과제는 '중소형 조선포 주력선종의 최적선형 및 에너지절감장치 적용기술 개발'로, 문창조선포·유달조선·신안중공업·한국아나세·한국종합설계·극동선박설계가 참여한다. 또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유관기관으로 함께 한다.

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산업 분야별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중·장기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이다.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을 지원한다. 목포대 박종환(조선공학) 교수는 "이번 과제 선정으로 설계 및 연구 인력의 절대적 부족으로 매우 열악한 조건 속에서 고전하고 있는 중·소형 조선포들의 고효율 저항·추진 성능을 가지는 명품 선종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순천만 갈대축제 성황 지난 19일 순천만을 찾은 관광객들이 갈대밭 탐방로를 걸으며 만추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지난 17~19일 순천만 일원에서 열린 '제16회 순천만 갈대축제'에는 20여만명이 방문했다. <순천시 제공>

전남도 생표고버섯 브랜드 '산뽕향' 개발...포장재 디자인 완료

공동브랜드 통해 명품화

전남도가 지역의 대표 농·수·축산물에 디자인을 접목해 생표고버섯 브랜드 '산뽕향'과 포장재(사진) 등 디자인 개발을 완료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생표고버섯은 브랜드와 포장재가 생산자단체, 임업인 등 생산자별로 난립할 뿐 아니라 브랜드가 없는 제품도 다양 생산·유통돼 전남산 버섯의 인지도가 낮아졌다. 전남도는 포장재를 사용해 명품 표고버섯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표고버섯의 공동 브랜드 및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해 명품화하기 위해 브랜드, 패키지 분야 등 전문가 3인을 디자인 PM(Project Manager)으로 지정, 심도 있는 자문과 지도를 통해 초기 시안을 개발하고 전남도공공디자인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받아 개발을 완료했다. 또 농산물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의견 반영을 위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조사로 네이밍과 브랜드 디자인을 선정

하고, 포장재는 생표고버섯 농가 간담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토대로 디자인을 개발했다. 개발된 브랜드 명칭인 '산뽕향'은 산속에서 나는 뽕의 내음을 가득 품은 버섯이라는 뜻과, 한번 먹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향을 지녔다는 의미로 전남 생표고버섯의 품위에 중점을 뒀다. 포장재는 생표고버섯 농가 간담회 시 제시된 기존 박스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 의견을 반영해 선물용(상자), 운반용(박스), 택배용(스티로폼), 공판장용(론

티박스)으로 용도에 따라 소재와 디자인을 다르게 개발해 활용도가 높도록 했다. 이 디자인은 전남도 산림산업과의 지원사업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 경찰관들이 20일 정읍시 칠보면 충훈탑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전북 소식

석정문화제 25~26일 부안·전주서 개최

시 낭송·강연·문학상 시상 등

'목가 시인' 신석정(1907~1974)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석정문화제가 오는 25~26일 이틀간 부안과 전주에서 열린다. 문학제에서는 석정의 시 낭송, '문학과 인생'을 주제로 한 문학강연, 문화공연 등이 진행된다. 올해 제정돼 첫

수상자를 배출한 신석정 문학상과 신석정 추념문학상의 시상식도 열린다. 부안 출신인 신석정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참서 개명을 거부하고 독재시대를 비판한 저항의 문학인이자 교육자로 '그 먼 나라를 아십니까', '아직 꽃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등의 시를 남겼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순창군 198억 투입 '교육 백년대계' 수립

다문화 등 배움의 기회 확대

순창군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진흥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군은 로드맵에 따라 2015년 45억원, 2016년 49억원, 2017년 이후 103억 등 총 198억여원을 교육분야에 투자하게 된다. 군은 최근 영상회의실에서 교육진흥 중장기계획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강오 부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5개부서 24개 사업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해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발생되는 문제점과 예산 확보 등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군이 작성한 '교육진흥 중·장기 계획'은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군민 모두가 교육받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살의 질' 향상과 인구유출 방지, 지역발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각 부서에서 단편적으로 추진되던 교육사업들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 발전계획이다. 특히 군은 다문화가족 결혼 이민자 교육 등 여성·어르신을 배려한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확대했으면 뿐 아니라 '육성인재'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 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 경찰관들이 20일 정읍시 칠보면 충훈탑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정읍경찰, 경찰의 날 맞아 충훈탑 참배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는 20일 '제6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정읍시 칠보면에 위치한 충훈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동봉 서장과 박규열 경위회 회장을 비롯해 각 과·계·팀장 20여명이 참석했다. 칠보 충훈탑은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1년 1월 고차일혁 경무관 등 경찰 75명이 북한 인민군 2000

여명에게 포위된 정읍 칠보 발전소를 탈환한 것을 기념해 세워졌다. 김동봉 서장은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산화한 선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받들어,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정읍경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나주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가/무인텔

- 나주시 중앙동 1층 상가 대지 423㎡ 건물93.6㎡, 의류매장, 식당 성업 중. 매 5억9천만
-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 앞 4층 무인텔 대지 1,152㎡, 객실 20, 관리실 2, 매29억

농지/임야

- 나주시 금천면 오거리 전 3,514㎡(대지, 임야 포함) 4차선 국도변 2중 주거지역 자연녹지 매5억 2천만
- 나주시 송월동 택지지구 대지 778㎡ 상인지역 4차선 도로변 나주시청 앞 매 8억8천만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15,868㎡ 혁신도시 인근 생산관리지역 매 16억
- 나주시 관정동 전 7,547㎡ 매립지 2차선 도로변 농업지역 매 3억2천만
- 나주시 동수동 전 배 과수원 2,784㎡ 공업지역 농공단지 옆 매 1억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전 5,600㎡(주택, 축사 포함, 일부 유실수 식재) 매 1억 7천만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임야 6,774㎡ 나주호 입구, 선산 적합 매5천만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 소나무 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 30억원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 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매 17억원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전 26,450㎡ 대동 김나무 과수원, 자경, 임대시 고소득 보장 매 4억원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치평동 6층 40억
- 쌍촌동 5층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 18.5억(보1.4억 월970만)
- 월계동 4층 17억(보2.2억 월850만)
- 상가주택, 원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쌍촌동 6차선 대로변 대지 준주거지역 1,610㎡ 매23억(사옥,병원 적합)
- 중흥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3,190㎡ 매34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10억
- 화순 청룡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 상가 신축 용지
- 창고/공장 용지
- 전원주택용지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땅” 급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번지 답 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 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4억 5백만원

공장부지 “땅” 급매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973 전 1,100평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572-6 답 121평 계획관리지역
 용자 9천만원
 매가 1억 8천만원

주인직매 010-8676-1900